

배추라면·묵은지 파스타… 광주김치축제서 즐기는 미식 파티

23~25일 사흘간 광주청사 일대 김치명인 마스터 클래스 등 운영 우수 김치 10~30% 할인 판매도

전남광주의 음식문화를 나누고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전파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식 축제, '제33회 광주김치축제'가 오는 23일 개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광주청사 일대에서 '압도하라! 김치파티'를 주제로 제33회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통과 현대, 세계의 맛을 아우르는 파격적인 프로그램과 대규모 할인 장터가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천인의 밥상'에는 지역 맛집과 개성 있는 외식업체 10곳이 참여한다. 기존의 틀을 깬 솔뚜껑 삼겹살과 보쌈은 물론, 배추라면, 묵은지 오일파스타, 김치마요 짜조 등 한식과 세계 각국의 조리법을



광주김치축제 포스터.

접목한 파격적인 김치 요리가 대거 선보인다.

아울러 23일과 24일 오후 6시 30분 야외음악당 주무대에서는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 공연이 어우러지는 '김치 파티'가 열려 가을 밤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세대를 사로잡을 콘텐츠도 대폭 강화됐다. '김치명인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김치축제 대통령 상 수상자가 직접 비법을 전수하며, '김치체험학교'와 어린이 전용 '김치놀이터(김장오락실·김장운동회)'가 운영된다.

특히 MZ세대를 겨냥해 신설된 '오늘만 사는 김치' 코너에서는 볼 배추김치와 한입 김치 등 이색 김치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김치를 소재로 한 개성 있는 굿즈를 판매하는 '김치가 최고심' 팝업 스토어도 운영되어 젊은 층의 발길을 끌 어당길 전망이다.

광주청사 1층 '김치 팝업 전시'에서는 김치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조망하며, 나주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열리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연계해 남도음식명인의 작품 전시와 체험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김치 마켓'과 '농수산물 장터'도 규모가 커졌다. HACCP 인증 업체와 전통

식품 품질인증 업체, 김치 명인이 만든 우수 김치를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고춧가루, 젓갈, 김장 도구 등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 현장에서 맛본 김치는 온라인 주문 및 전국 배송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보낼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원활한 행사를 위해 21일 오후 8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광주청사 앞 사거리부터 한국은행 후문 삼거리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일부 버스 노선을 우회 운행한다. 축제 기간 주말에는 청사 주변 관공서와 상무지구 평화공원 지하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전남광주관계자에 따르면 "다양한 재료가 버무려져 하나의 깊은 맛을 내는 김치처럼, 전남광주도 하나로 힘을 모아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고흥군, 1.2조 '우주선철도' 구축 강조

“철도망 없어 기업 접근성 떨어져 우주산업 기반 확충에 맞춰 연계”

고흥군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흥 우주선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고흥의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부각됐다.

정부는 2031년까지 약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고흥에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우주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고흥에는 아직 철도망이 구축되지 않아 수도권과 주요 산업·연구 거점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련 기업과 연구 인력의 이동에도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주산업은 첨단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간 교류, 관련 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다.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우주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광역교통망 확충이 늦어지면 국가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고흥(전남광주)=양수영 기자

이에 고흥군은 경전선 벌교역에서 고흥역을 거쳐 녹동역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46.8km, 사업비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고흥 우주선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흥 우주선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과 주요 산업도시에서 고흥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 인력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산업 기반 확충에 발맞춰 철도교통망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고흥 우주선철도를 이번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정부가 1조 6천억원 규모의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흥 우주선철도는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을 넘어 국가 우주산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고흥 우주선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 바비큐축제, 체류형 관광축제 거듭

이색 바비큐 시설 확대

충남 홍성군의 대표 미식축제인 '2026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한층 다져진 바비큐 콘텐츠와 지역 관광·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앞세워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홍성군은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흘간 홍주성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축제를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색 바비큐 시설의 확대다. 지난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던 대관람차와 바이킹, 회전목마 형태의 바비큐 시설에 높이 5m가 넘는 대형 '홍성스카이다워' 2대가 새롭게 추가된다. 스카이다워에서는 흥성한 우를 활용한 케밥을 선보여 조리 과정 자체를 볼거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바비큐 1존도 지난해보다 약 360평 확대하고 취식 공간을 확충한다.

/홍성(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기도, 소방차량 19대 추가 도입

도비 22억3000만원 추가

경기도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방차량 구입 예산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도비 22억3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차량 19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를 352억원으로 확정해 당초 예상액 409억원보다 57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구입 예산 48억 8000만원을 감액해야 했지만, 도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2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감액 규모는 26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소방재난본부는 확보한 예산으로 굴절차 2대와 현장지휘차 3대 등 5대를 구입했으며, 물탱크차 등 14대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소방차량 구입 예산 26억 5000만원이 삭감돼 차량 25대를 구입하지 못하게 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로 예산이 줄었지만, 도비를 추가 투입해 총 19대의 소방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김예원 기자 ywon@



경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은 지난 19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지금까지의 경제·행정 분야 교류에서 관광·청년·교육·문화까지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타이응우옌성, 관광·문화 교류 물꼬

경제·행정 넘어 협력 확대

경북도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은 지난 19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지금까지의 경제·행정 분야 교류에서 관광·청년·교육·문화까지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황명성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농광넷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서명했다.

도와 타이응우옌성은 2005년 자매결연 이후 대표단 상호 방문과 새마을운동, 경제·행정 분야 교류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타이응우옌성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태풍 피해 주민을 위한 위로성금 20억동(한화 1억1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6월말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등록외국인은 약 3만명(도내 전체 등록외국인의 약 31%)이다. 국적별로 가장 많다.

타이응우옌성 대표단은 딘 팡 뚜옌 타이응우옌성 당위원회 부서기 겸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 농광넷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인민위원회 13명과 응우옌 티 빈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등 여성기업인협회 34명 등 모두 47명으로 구성됐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신규임용후보자 147명 발령

포항시는 지난 19일 포항시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신규임용후보자 147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발령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령받은 실무수습원은 총 147명으로, 직렬별로는 ▲행정 68명 ▲사회복지 35명 ▲시설 10명 ▲공업 9명 ▲간호 5명 ▲세무 5명 ▲복지 3명 ▲환경 3명 ▲전산 2명 ▲농업 2명 ▲운전 2명 ▲사서 1명 ▲보건 1명 ▲방송 통신 1명이다.

이날 발령식은 발령장과 실무수습 신분증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기획관의 시정 현황 및 정책 교육, 정보통신과의 실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김해시

빈 부지 활용해 주차난 해소

김해시가 도심 곳곳의 유휴 공한지를 활용해 무료 주차 공간을 늘리고 있다.

시는 개발계획이 없거나 장기간 쓰이지 않은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만드는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조성한 공한지 주차장은 31개소, 895면이다. 시는 2026년 9월 기준 내외동, 진영읍, 삼계동, 장유1·2·3동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13개소, 362면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 사업은 새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과 달리 기존 유휴토지를 활용해 사업비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경제기관 3곳 새 리더십 출범

부산시는 지난 19일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진흥원 신임 기관장을 임명했다.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에는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본부장,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는 김현준 전 BNK 경남·울산 영업본부장, 부산경제진흥원 원장에는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임기는 모두 2년이다.

세 기관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산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쳤다. 이들은 지난 달 29~30일 열린 청문회에서 모두 직무 수행에 적극 판정을 받았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성남시

‘산성대로 미션 투어’ 운영

성남시가 관광 명소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산성대로 미션 투어'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지역 내 주요 명소를 방문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소비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성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